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완화의료센터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대표전화: 051-254-0171, 완화의료실: 051-240-7866



1992년 가톨릭 원목실이 주관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의 호스피스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96년 4월 부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호스피스실이 개설되었고 호스피스 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8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동의 뿔꽃이 만개하듯이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 암센터의 호스피스도 점점 더 꽃피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열악하지만 굳센 의지로 산재형 호스피스를 시행했고 1998년 제1회 사별가족모임을 열었습니다. 2008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 영양사, 약사 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적인 호스피스팀을 꾸리면서 현재의 완화의료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학제적인 팀으로 이루어진 본원의 완화의료 팀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완화의료센터 민들레방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다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부산지역 호스피스 관리자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지역의 호스피스 환자들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수료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호자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환자의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산지역 암센터 개소와 더불어 완화의료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첫 14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하였고 암환자 완화의료 지정기관 기준에 걸맞게 화장실을 갖춘 병실과 목욕실, 사랑방(가족실), 해바라기방(임종실), 상담실, 요법실 등을 구비하여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2009년 9월 9일 부산지역암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체계를 갖추어 본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산지역 암센터 별관이 개설되어 본관에서 이전하여 별관3층에 완화의료센터(53병동)로 오픈하였습니다. 타병동과 차별화되어 병동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행하였고 5인실 4개, 3인실 2개, 1인실 1개, 임종실 등 28병상으로 증설되어 더욱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외부정원, 사랑방(가족실), 민들레방(요법실), 상담실, 치치실, 목욕실, 배선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실 등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맞추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월 각종 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다과봉사, 매월 2, 4째주 목요일에는 미술요법과 풍선공예, 매주 목요일 종이공예와 클레이아트, 매월 4째주 금요일 오카리나와 합창 등 음악요법, 아로마 마사지, 외모관리 프로그램 등을 계

획하여 환자들이 삶을 완성하고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증상완화 후 퇴원하는 환자들은 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부산성모병원)으로의 전원 및 2차 의료기관, 보건소 재가암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을 통해 호스피스 돌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소와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임종 시 증상교육과 정서적 지지, 영적 지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부 봉사자들이 환자 입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별관리는 전화방문, 편지 보내기 등으로 사별가족의 아픈 마음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별가족모임을 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본원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주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병원비 지원,

물품 지원등을 통해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호스피스 월례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100여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돌보고 있으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1인,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정신과 전문의 1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14명, 사회복지사 1인, 사목자 3인이 환자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부산시로부터 암환자완화의료기관지정을 받고 2010년 암환자 완화의료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의 말기암환자들을 위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외롭게 떠나지 않도록 호스피스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환자들을 위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암센터 전경

